

성령 강림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PENTECOST SUNDAY

주후 2024년 5월 1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통일 17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35번 성령 강림 (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한경준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John) 16:4-15, 롬(Romans) 8:22-27	배성용 집사
찬 양 Anthem	“십자가”	찬양대
설 교 Sermon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When The Spirit of Truth Comes)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거룩하신 성령이여”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통일 17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분냄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세상에 속한 죄와 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반복되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139:2-3, 고후 12:2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He will speak only what He hears, and He will tell you what is yet to come..” (John 16: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19 (주일)	5/20 (월)	5/21 (화)	5/22 (수)	5/23 (목)	5/24 (금)	5/25 (토)
	민29	민30	민31	민32	민33	민34	민35
본문	시73	시74	시75,76	시77	시78:1-37	시78:38-72	시79
	사21	사22	사23	사24	사25	사26	사27
	벧후2	벧후3	요일1	요일2	요일3	요일4	요일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22수 오후7:30)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행6:1-7)
토요 새벽기도회 (5/25토 오전6:30)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소서” (시139:1-24)

지난 주일(5/12) 말씀

“알게 하려 함이라” (요 17:6-19, 요일 5:9-13)

처음 요한일서를 받아서 읽었던 1차 수신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랐던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요일5:13상)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들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겼지만, 이들 안에 영생(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5:13하)고 분명히 기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다”로 번역된 헬라어(“기노스코”)는 어떤 지식으로 알거나, 깨달아서 안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직접) 경험을 통해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체험하여 알았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요일5:10)는 것과,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요일5:11)는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 받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엡4:13-14).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으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